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27강, 고린도전서 11:2-34, 공적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 고린도전서 11:17- 34

© 게리 미도어스와 테드 힐드브랜트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27강, 고린도전서 11:2-34, 공적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1:17-34,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트 팩 번호 13, 고린도전서 11장 17-34절, 이 장의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로운 부분인데, 우리는 장의 전반부에 남성-여성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았고, 그런 다음 완전히 다른 주제로 옮겨갔고, 죽음 전후와 같은 전형적인 구조적 지표 없이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7:1에 나오는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특정 상황에서 제기되는 회중에 대한 그의 마음에 무언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있으며, 1-6장의 더 논란이 많은 부분과도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이 특정 장에서 그는 공동체, 식사, 특히 그들이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린도인들의 관행을 정말 비난하고 있습니다. 글썄요, 지금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11장 17-34절, 노트 170쪽의 2번째 요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이 주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로 주님의 만찬과 관련이 있습니다.

11장 17-32절에서, 갈랜드는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주님의 만찬에 돌아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만찬을 축제 식사로 바꾸어,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박탈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늦게 온 사람들을 이미 거기에 있고 집의 다른 부분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먹어야 할 수 있는 불임성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여, 주님의 만찬이 11-26절에서 선포하는 십자가 자체의 다른 네 가지를 훼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교회를 공동체로 모아야 하는 사회적 식사가 되는 대신, 우리는 분열을 겪고, 지위를 놓고 경쟁하고, 지위가 없는 사람들을 매우, 매우 원시적인 엘리트 지위로 대우합니다. 윈터가 말했듯이, 고린도 사람들 중 일부의 행동은 주의 만찬에서 세속적인 고린도에서 사적인 만찬이라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관습을 따랐기 때문에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그들의 행동을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이고, 다른 많은 해설자들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 17-22절에서 고린도 회중의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바울의 가장 노골적인 비난으로 시작됩니다. 11장 17절에서 이어지는 지시에서, 나는 너희에게 칭찬할 것이 없다. 너희의 집회는 유익보다 해를 더 많이 끼친다. 이것은 지금까지 읽은 많은 것들보다 훨씬 더 노골적 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인 7-1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배운 긴급한 공적 예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가 이 문제를 치료하는 데 자극을 주었을 것입니다. 11, 17-22에 있는 몇 가지 위험 신호를 고려해 보세요.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지시문에서, 저는 2011 NIV에서 읽고 있습니다. 다음 지시문에서,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 칭찬할 것이 없다. 너희 모임은 유익보다 해를 더 많이 끼친다"고 말합니다. 첫째, 나는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서의 앞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사이에 분열이 있고, 어느 정도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완곡어법인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분 사이에는 누가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소 냉소적인 표현이지만, 사회적 구조 수준에서 누가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는지 보기 위해 여기서 지위 문제가 표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일 때, 여러분이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여러분이 먹을 때,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사적인 만찬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배고프고, 다른 사람은 취합니다.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모욕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합니까? 지위 문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당신을 칭찬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는 17절에서 이 문단을 칭찬 없이 시작합니다. 그는 22절에서 칭찬 없이 끝냅니다. 여기 아래에 나오는 몇 가지 위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1:18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었고, 이것은 그가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분열과 경쟁, 경쟁을 다룬 서신의 앞부분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11:19에는 지위 갈등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너희가 지위를 과시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인하신다는 신호인 것처럼 말입니다.

모임의 성격은 로마의 지위와 식사 의례를 따르며, 특히 11:20과 21을 따른다. Garland는 Pliny the Younger가 그런 행사를 묘사한 것을 인용한다. 인용문에 따르면, 가장 좋은 요리는 그 자신, 즉 호스트와 그의 특별 손님 몇 명 앞에, 그리고 값싼 음식 조각은 나머지 회사 앞에 차려졌다. 그는 심지어 와인을 작은 플라스크에 담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하나는 자신과 우리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덜 중요한 친구들을 위한 것이고, 그의 친구들은 모두 Pliny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세 번째는 그와 우리의 해방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플리니우스가 일어난 만찬에 대한 비판에서 사회적 구조와 지위가 작용한 것을 볼 수 있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래 170번 항목에서 바울은 그들이 그것이 주님의 만찬이라는 주장을 부인합니다. 그는 매우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였을 때, 여러분이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이것을 지역 사회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의 일부로 주장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그 공로를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Winter가 이 부분을 일관되게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하세요. 이제, 만찬, 만찬, 모두 같은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그리스어 단어가 있지만, Winter와 주님의 만찬에 대한 그의 초점을 읽을 때, 그가 우리가 그들에게 만찬이라는 단어의 공로를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일종의 말장난을 하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식사에서 매우 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에는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빵과 잔뿐만 아니라 식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모임에서 식사를 하며 함께 모였고, 그런 다음 우리가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빵과 잔입니다. Winter가 이것을 일관되게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하세요. 아마도 그 행사의 불법적 성격을 말장난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 용어는 흔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Supper 대신 Dinner를 선택했는데, 둘은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 용어와 어휘에서 Lord's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Lord's Dinner, 글썄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저는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 만찬은 지위 연회의 전형적인 술 취한 세팅이 되고, 음식, 음료, 그리고 존재에서 지위가 없는 신자들을 완전히 소외시킵니다. 20~22

절에서, 당신이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21절, 왜냐하면 당신이 먹을 때, 당신 중 일부는 아마도 집 안에서도 당신만의 사적인 만찬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있을 지위 장소가 있고 개인들 사이에 지위가 있습니다.

여기의 고고학적 문제 중 일부를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름 오후라 천둥치고 비가 온다. 다행히 전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 결과, 한 사람은 배고프고, 다른 사람은 취한다.

그들이 호스트 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모욕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종교적 행사, 이 신성한 식사를 함께 교제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빵과 잔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매우 불만스럽다는 것을 가능한 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22절에서 그는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행동에 대한 칭찬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 대부분에서 연회와 식사, 모임이 열릴 때 묘사된 사회적 지위의 문제가 새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교회로 직접 옮겨와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는 면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지경까지 극도로 학대하고 학대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식사의 일부였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데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서 22절까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문제를 제시하고, 매우 명확하게 진술하며, 우리는 로마 고린도의 배경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였을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대한 적절한 전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울이 17-22절에서 세속적인 만찬 세팅을 비난한 후, 그는 주님의 만찬에 대한 도미니칼 전통을 되뇌었습니다. 23-26절에서 그는 우리가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예수의 서론을 복음서에서 인용합니다.

번역된 용어와 받은 것, 실례합니다, 받은 것, 전달한 것. 왜냐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이거나 전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 예수님이 배신당한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실례합니다, 23절의 시작 부분에 두 가지 기술 용어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전통의 권위 있는 전달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50년대에 이 글을 썼습니다. 복음서, 아마도 마가복음은 이미 작성되었고, 다른 복음서 중 일부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 공동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태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님의 만찬을 소개한 도미니칼 전통은 초기 교회의 구전 전통의 주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복음서와 관련하여 그것을 매우 많이 반복한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바울은 그 용어, 특히 전달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배신당하신 밤에 빵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달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런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패러디시스트, 즉 전통입니다. 11장 초반에 등장했습니다.

패러디시스트와 동사 형태인 파레드카는 교회 내 요구 사항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보의 전통을 권위 있게 전달하는 기술 용어입니다.

이제, 여기서 의식과 성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에 대해 잠깐 언급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의식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아니면 성례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에게, 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의식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관행입니다. 의식은 또한 예수께서 영속하라고 명령하신 관행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과 세례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 씻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교파와 종교적 전통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예수에 의해 제정되었고 예수에 의해 영속되도록 명령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초기 교회의 사도들에 의해 영속되었습니다.

발 씻기는 약간 난항을 겪지만, 디모데가 성도들의 발을 씻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교파 간에 논쟁이 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만찬을 진정으로 특징짓는 것이 무엇인지, 세례를 다른 관행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것을 제정하고, 예수가 그것을 영속시키라고 명령하고, 사도들이 실제로 초기 교회에서 그것을 영속시킨 문제입니다. 편의상, 예수가 그것을 제정한 주의 만찬에 대한 복음 말씀의 표를 여기에 제시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복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고린도전서 11장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싶어서 공관복음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두 복음이 얼마나 가까운지 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는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린 후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는 다 그것을 마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20절까지 다른 순서로 나오고, 그는 만찬 후에 잔을 가지고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빵과 잔보다 식사에 대한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약간 다른 변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언급할 또 다른 이유로 중요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는 25절에서 잔을 취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빵 한 덩어리를 취했습니다. 빵 한 덩어리는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빵과 잔에 대한 동일한 도미니칼 전통 레이아웃을 따릅니다. 고린도전서와 비교한 복음서에서 이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의 만찬을 리허설할 때, 윈터는 바울이 제정 서사의 어순을 바꾸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빵과 잔의 제정과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것을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공관복음서의 그리스어와 고린도전서의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브루스 윈터의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독해는 그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쓴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는 Winter가 바울이 여기에서 고린도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제안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스어의 인칭대명사 *mu*는 나 또는 소유격 *my* 또는 *mine*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저는 이것의 아래에 나열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이렇게 번역하면, *touto* 는 지시대명사이고, 이 동사는, 그러면 나의 몸은 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는 복음서에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1:24에서 바울은 *touto mou estin to soma*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에게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어진 몸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것들에서 다섯 번째 단어에 나오는 *mu*를 두 번째 단어로 둡니다.

이제, 이러한 인칭대명사, 특히 소유격대명사는 많이 옮겨 다닙니다. 그리스어는 중요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어순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단어를 다른 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Winter가 말하는 것을 약간 뒷받침하는데, 그것은 Paul이 Dominical 전통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Winter는 Paul이 요점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당신은 Winter를 읽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동의하지만, 그는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인용문 전체를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 차트 바로 뒤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윈터가 인용문에서 바울이 성찬의 말씀을 인용한 목적은 단순히 자신이 이미 그들에게 전한 전통을 반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이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권위 있는 전달이 있습니다.

그는 그 식사와 빵과 잔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정의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할 권한이 있고, 고린도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그는 그 전통의 일부 단어 순서를 재정리함으로써, 그들을 대신하여 언약에 편입시키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종으로서의 예수의 행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의 행동은 예수께서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제정하신 만찬에서 드러난 고린도인들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철저히 비난했습니다. 예수의 자기 희생은 그들의 이기심과 지위 추구에 의해 남용됩니다. 바울이 1120년에 이것이 주님의 만찬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만찬이 되는 의무를 부과했거나, 주님의 만찬이 되면서 그들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모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방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거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바울을 본받는 것이 여기와 바울의 글에서 가끔씩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이 고린도서에서, 여기 있는 고린도인들 중 어떤 무리는 바울이 가르친 모방 모티브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질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만찬이 적절한 방식으로 거행되는 것을 질투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가 만찬을 시작한 사건에 수반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실제로 유월절 식사를 했는가? 이것은 예수가 잔에 빵을 차리는 축하와 관련하여 유월절을 먹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경 복음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또 다른 완전한 질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이에 대한 문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월절이 있었던 수난주간의 연대기와 그 사건들이 어떻게 순서대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약명 높은 도메인입니다. 이전에 Dallas Seminary에 재직했던 Harold Hohner는 논문을 썼고, 그 후 그리스도의 생애 연대기에 대한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훌륭한 작은 책이지만, Hohner, HOEHNER, Harold Hohner, Chronology of the Life of Christ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유월절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헌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Garland는 그 질문에 대한 여담을 하기도 했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27-34절에서 주의 만찬을 오용하는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심판 선언.

그래서 그는 17-22에서 시작해서 용납할 수 없는 관행에 대해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23-26에서 그들에게 도미니코 전통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그는 27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떡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합당치 않게 마시는 자는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의 정죄 특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과 관련하여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행위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실행한 결과입니다. 방금 읽은 27장에 있는 이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매우 문자적인 번역으로, 주님의 빵을 먹거나 잔을 합당치 않게 마시는 자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제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NIV는 동적 기능적 등가성에서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부사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만찬, 빵과 잔을 기념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중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요일 아침에 와서 성찬식 일요일입니다 .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글썄요, 그 주의 죄에 따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때때로 금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당신의 가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이 어떻게 거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의자에 앉아 있거나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는 어떤 장소에 앉아 있을 때, 마음에 "나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고백하세요.

처리하세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밀은 없습니다. 그러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님의 만찬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설명한 대로, 주님의 만찬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사회적 계층, 구조, 관습에서 바울은 그것들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들은 고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들의 행동과 이 의식, 이 성례의 거룩함에 대한 그들의 주의 부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정죄를 마시고 먹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서 아버지께 중보자가 있습니다 .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매일, 매주, 심지어 잠깐이라도 그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선언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방식의 맥락에 의해 주님의 만찬이 오용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거기서 나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가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만찬이 거행되는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172쪽 하단에 있는 자기 성찰에 대한 기대.

28절에서 주님의 만찬을 취할 때 자기성찰을 기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차례 빵과 잔을 기념하는 방식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아마도 한 달에 한 번이 최소한의 기대치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에서처럼 매일이나 매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전은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설명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행할 때는 진지하게 행하십시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면서 행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주님의 만찬을 많은 것으로 어지럽히지 마세요. 때때로, 미국 교회에서는 항상 소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참을 수 없습니다. 글썬요, 여기가 좋은 곳입니다. 우리의 어수선한 삶 때문에 침묵이 우리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자기성찰에 대한 기대는 주님의 만찬과 그 축하의 일부입니다. 더욱이, 페이지 맨 아래의 세 번째 글머리 기호는 자기성찰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29절.

그리스도의 몸의 심각성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나는 거기서 여러분에게 작은 것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취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고,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잠이 들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제, 고린도서나 다른 책에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없는 진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경솔하거나 과장해서 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주님의 명령을 경솔하게 실행한 결과로 그들에게 닥친 일을 깨닫게 될 그 공동체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절에서.

약하고, 아프고, 죽었어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계속됩니다.

풀이 돌아올 때까지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은 11:33과 34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30을 해야 합니다. 31을 보세요.

30절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잠들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이런 식으로 심판받을 때, 우리는 세상과 함께 최종적으로 정죄받지 않도록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5장의 약간의 변형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직접 그 심판을 행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것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지만, 신의 눈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은 이런 일들을 기록해 둡니다.

33절과 34절, 결의. 그럼, 이제, 그가 여기 3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럼, 형제 자매 여러분.

와. 이 장은 강력했어요. 바울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함께 채찍을 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이 문제들에 대해 그들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때려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33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글쎄요, 그래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에 대해 직설적이고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 심지어 그들 중 일부가 아프고 죽었다는 정도로 심하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모여서 식사할 때는 모두 함께 식사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 모임이지 지위 모임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무언가를 먹어야 합니다.

캐리온을 가지고 올 거라고 기대하고 여기 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모였을 때 통제 불능으로 인해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 더 자세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우호적인 분위기, 격려적인 분위기, 교육적인 분위기로 끝맺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드럽게 하지만, 고린도 공동체가 주님의 만찬을 오용한 것에 대해 내린 판단의 측면에서는 아주 약간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찬을 거행할 때 설교해야 할 본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빵과 잔을 거행하기 전에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많이 있고, 이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173 페이지에 성금요일과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한 일을 포함시켰는데, 여기에는 주님의 만찬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173~174페이지에서 성금요일까지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했고 앞으로도 다른 곳에서 설교할 성금요일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찬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특히 복음서와 성경의 메타내러티브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173 페이지에서 주의 만찬의 적절한 실행, 주의 만찬을 유대인의 유월절 역사에 맞춰 설명합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유대-기독교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유월절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성취하신 주요 이미지이며, 그는 빵과 잔으로 우리에게 기억을 가져다줍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 올려둡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가족적 맥락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어린 양은 12장에서 유월절 전날 황혼에 도살됩니다.

어린양의 피는 의식적으로 문틀에 바릅니다. 8~11절에서 무교병과 쓴 허브를 곁들인 식사. 저는 항상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빵에 대해 약간 화가 납니다.

항상 발효되지 않나요? 가족의 수장은 식사 중에 종교적 전통을 되뇌고, 그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해야 하는 무교절 7일 동안의 꾸러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서 예수님과 성가족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있었던 일들이 있고, 그다음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중에 보게 되는데, 유월절이 주요 사건, 주요 달력 사건이 되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시간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유월절은 약 4번입니다. 그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여전히 유월절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4번이니, 예수께서는 3년 반에서 4년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6:1~8, 역대기 하권을 비교해 보면 유월절 축하가 가족 단위에서 국가적 맥락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족으로 시작해서 모세가 계속 가르치면서 신명기에서 종교적 축하로 옮겨갔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전파한 율법을 반복한 것이고, 모세도 없이, 신명기 16장에서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고,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국가적 순례 축제로 넘어갑니다.

동물은 양이나 소일 수 있으며, 희생의 시간은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 바뀌었고, 굽는 것에서 끓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양한 이유, 아마도 대부분 실용적인 이유로 신명기에 나오는 종교적 이스라엘 축하에서 바꾼 특정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이 제2 성전 유대교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서기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의 구약 중간기에는 우리가 제2성전 유대교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많은 문헌을 썼습니다. 기원전 150년경인 Jubilees 49를 보면, 그리고 Mishnah에서 Pes harim은 우리가 유월절 논문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에 대한 문헌입니다

그것은 서기 200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이는 사도 시대보다 훨씬 뒤떨어진 시기였지만, 1세기에 구전으로 어떤 의미로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시대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야 성문화된 특정 랍비 자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중 일부는 1세기에 구전으로 전해졌을 수 있지만, 그것은 논의해야 할 또 다른 분야입니다.

저는 거기에 참고문헌을 드렸고, 여러분은 그것들을 보고 유대인 역사에서 유월절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마태복음 26:17~46을 지적합니다. 저는 그것을 풀어낼 장소로 마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1~52절까지 더 긴 섹션이 있고, 누가복음은 단어를 세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 1~53절에서 마가복음을 약간 능가하고, 다락방 담화의 일부인 요한복음 13장은 주의 만찬이 시작된 역사적 배경과 순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 쓰여진 책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많은 텍스트와 그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약성서와 유대교의 중간 시대 문제에 연결하면 숙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대해 다른 장소에서 10년 동안 설교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 복음 전통 사이의 차이는 아마도 종교 집단 간의 다양한 카운터 사용이나 작가의 주제적 관심, 또는 프레이밍 목적으로 예수가 사건을 재조정하는 데 기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했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맥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일은 마태 복음의 서사에서 여러분을 위해 펼쳐 놓은 것입니다. 네 가지 큰 움직임, 식사 준비, 유다와 관련하여 일어난 정화, 그리고 참여. 유다는 빵과 잔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고, 때로는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구절을 나란히 배치한 하모니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상황의 끝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위한 준비, 행사, 무교절, 유월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시를 받았고, 내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는 26:18과 19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이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함이 마가복음 14:13에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마태 복음의 서사에서 흘러나오게 둘 뿐입니다. 그래서 정화에서 배신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유다에 대한 서사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12명 모두 참석했습니다. 유다는 12명 중 한 명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배신당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립니다.

예수께서 공관복음서에서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궁금해했던 것은 성숙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까? 성숙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손을 들어 "주님, 유다여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를 알고 있으니깐요."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흥미롭습니다.

아니요, 요한은 유다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후에 한 일입니다. 그는 역사적 순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뒤돌아보고 조각들을 모아서 합니다.

유다는 그룹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식사 때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배신한 것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인 베다니와 유다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락방에서 이런 대립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발을 씻습니다.

그는 유다에게 먼저 먹이를 주어 명예로운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빵과 잔보다 먼저 떠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를 대하는 데 조심하세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와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할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12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12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이 싫어하거나 생각했던 일을 하는 것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나는 배신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를 가리킬 정도로는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화에서 주시는 예언은 그들이 흠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터의 부인이 나옵니다. 닭이 울고, 피터가 안뜰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덜어내려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참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화 직후입니다. 참여 유다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거나 식량을 더 사러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11명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만찬의 제도, 상징주의, 그가 왕국에서 다시 먹을 것이라는 예언적 약속, 다락방에서의 작별 메시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찬송가와 출발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른 후에 떠났다고 합니다. 글썄요, 여기에 하모니를 넣으면, 요한이 기록한, 실제로 떠나기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약간의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유월절 축제에서, 유월절 식사에서, 할렐 시편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할렐 시편, 찬양의 시편은 유월절 동안 불렀습니다. 그것은 시편 113~118입니다 .

주님의 만찬을 염두에 두고 시편 118편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할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다락방을 떠나기 전에 불려진 마지막 찬송가이거나 시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6:30에 따르면, 그들은 노래하고 떠났습니다. 아마 시편 118편이었을 겁니다. 시편 118편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편입니다. 우연한 이상함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중간 구절, 영어 성경의 중간 구절은 시편 118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구절, 내가 올바르게 기억한다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편 118편에는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 아래 모든 것에 대해 그 구절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만의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 구절은 그가 교회를 위해, 그의 백성을 위해,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바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당신의 소중한 하루만이 아닙니다.

선함은 예수님의 죽음과 죄를 위한 그의 희생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그 구절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설교하세요.

찬송가와 출발. 그리고 겐세마네로 출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기 직전에,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의 담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찬송가를 불렀지만, 그들이 정말로 방에서 나가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까지와 같은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다락방 담화이다.

당신은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놉틱 복음서에는 주님의 만찬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어서 당신이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그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잔은 아마도 그가 세상의 죄를 묻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 삼위일체에서, 그 이미지에서

아들의 역할은 그를 아버지와 분리합니다. 이제, 삼위일체에는 존재론적 분열이 없지만, 이미지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제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아들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아버지와 분리되는 순간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죄에 등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네 가지 요점을 얻었습니다. 공개에 대해서는 사실 세 가지, 네 가지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 정화, 참여,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세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정말 똑바로 하고 싶다면 네 번의 설교 시리즈를 가질 수 있지만, 전체 패키지를 보여준 다음 나누어 보세요.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더 낫죠. 숲에 너무 빠져서 나무만 보이지 않게 하세요, 알겠어요? 이제 매튜의 묘사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성금요일 설교를 위해 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와 교회 그룹에서 기업 성금요일 설교를 했고, 제가 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방식입니다. 제가 이 단어 good 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세요. 이 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이 날에 기뻐하세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내가 이 테마를 어떻게 다루는지 굵은 글씨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의 지상 생활에서 지난 24시간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이해하면, 그것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인 듯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분노, 질투, 증오, 비겁함이 이 마지막 날에 이성과 정의를 이기는 듯합니다. 그런 것들에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무고한 사람을 육체적으로 고문하고 죽이는 것에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뭇 김슨이 영화

The Passion of Christ에서 그날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어떻든, 역사의 기록상 이 날은 매우 추악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그것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 마지막 만찬에서 불린 마지막 노래는 아마도 유월절 축하에서 사용된 할랄 시편 시리즈의 마지막 노래였을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여전히 예수님의 귀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말씀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 그가 겪은 투쟁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시편 118편을 읽어보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다.

여기 중간 구절, 8절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기 베드로가 서신에서 언급한 베드로의 비유가 있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기이합니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구절이 있습니다.

오, 주님께 감사드리세요, 그분은 무엇이신가요? 좋으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와우.

글쎄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훌륭한 글입니다. 그날 고통과 십자가 처형의 날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끔찍한 상황과 사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예수께 있어서, 독특한 인간의 아들이자 주님의 종으로서, 그것은 승영과 굴욕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관찰자들은 굴욕의 측면을 강조하고 승영은 부활 일요일에 남겨두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승리였습니다. 이 성금요일의 성찰을 위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1절까지를 펴세요. 그리고 나서, 공적 예배에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냥,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을 거예요. 글썩요, 입을 다물고 가끔 성경을 읽는 게 나올 거예요.

공공 예배에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본문을 설명하세요. 글썩요, 제가 하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종의 노래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2장과 53장에 있는 메시아적 텍스트입니다. 종의 노래의 배경, 176페이지 2번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의 구조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머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사야를 넓게 훑어보고 이사야와 그 메시아적 표현에 대해 이야기하고, 종의 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흥미로운 작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주석에서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사야 52장과 53장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메시아적이라고 봅니다.

유대인에게 읽어주면 그들은 감명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개인 메시아적 인물이 아니라 온 나라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를 읽어서 그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성경을 안다면, 그들은 감명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이 개인주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회고해보면, 우리는 그것이 메시아인 예수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의 그 부분을 다 읽고 나면, 그것이 뭐라고 말했는지 주목하세요. 저는, 결국 좋은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 노래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드린 흥미로운 카이아즘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문학 작품입니다.

어떻게 이보다 덜한 것이 창조주의 위대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2장과 53장의 종의 노래는 사려 깊은 구성을 반영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본문은 카이아즘 (52장 13~15절의 수수께끼)으로 알려진 문학적 형태로 배치됩니다.

53:1~9에 있는 계시. 그리고 53:10~12에 있는 해결책. 그런 다음, 이 요점의 일부로서 그 항목 각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드립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설교로 만드세요. 자유롭게 가져가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간의 177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구조에 훌륭하게 포함된 고난받는 종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글썄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런데, 그 고난받는 종의 주제는, 예수께서 요한과의 세례에서 다루셨습니다.

돌아가서 세례를 연구해 보세요. 그는 거기에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내려놓으신 도전장을 집어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에드워드 퍼지라는 사람이 쓴 훌륭한 기사가 있는데, 퍼지, 퍼지, 흥미로운 이름입니다. 에드워드 퍼지, 에드워드, 제 생각에는요.

바울은 그의 사역에서 주님의 종의 도전을 집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약성경 본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실제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제가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종을 세상의 죄를 짊어진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봅니다.

실제로 역사는 하나님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노골적으로 말하는 1세기 유대인은 이사야의 요점을 알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 2:21-25에서 신약에서 이사야 53장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결론에서 그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성금요일, 그리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빵과 잔에 대한 성찰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래된 찬송가를 한 곡 읽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찬송가와 찬송가 책을 잊어버린 찬송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창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7-11이라고 부르는데, 찬송가에서 7개 단어가 반복됩니다. 11번.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말하는 오래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묻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 바울이 말한 십자가, 그 사건을 기념하는 빵과 잔. 그래서 바울은 11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질투했습니다. 엘리트 지위 문제로 만찬이 오용되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꾸짖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만두고, 바로잡고,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글썄요, 여러분이 주님의 만찬에 대해 생각하고, 이 주제를 기념하는 성경의 엄청난 부를 살펴보는 데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앉아서 새 땅, 영원한 상태에서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축하하실 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27강, 고린도전서 11:2-34, 공적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11:17-34, 신 앞에서 예배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